

순천 낙안읍성, 드라마·영화 촬영 성지 자리매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다큐·예능 등 5개 장르 44회 촬영 조상 삶의 흔적 유지 최적지...대만·필리핀 등 방송사도 관심

‘국내 민속 문화의 보고’ 순천 낙안읍성이 최근 2년간 드라마·영화 촬영 총 40여회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촬영지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해외방송사 3곳에서 영상 촬영차 잇따라 방문하는 등 외국 매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드라마·영화·다큐멘터리·홍보물·예능 등 5개 장르에 걸쳐 총 44회의 촬영이 이뤄졌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이 낙안읍성이 제작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조선시대의 전통과 문화 등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방영된 드라마 중 퓨전사극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과거와 현재를 함께 촬영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의 ‘2년간의 촬영 내역’에 의하면 KBS ‘혼례대첩’, MBC ‘조선변호사’, TVN ‘태극전사’ 등 드라마 11편에 총 20회의

촬영이 이뤄졌으며 아직 개봉 안 된 영화 2개도 이미 촬영을 마무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달에는 2편의 드라마 촬영이 예약돼 있다.

또 공중파와 국외방송 등의 방송사를 비롯해 지자체와 재단이 제작한 홍보물 촬영도 16회에 달하며, KBS ‘한국인의 밥상’ 등 교양·다큐·기록물(5회)·예능(1회)이 촬영됐다.

낙안읍성은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 방송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대만 GTV에서 순천시 관광을 내용으로 한 홍보물 제작에 이어 올해 필리핀 GTV(4월)와 튀르키예 Habertork TV(5월)의 프로그램도 이곳에서 제작됐다.

낙안읍성에서의 촬영에 대한 기록이 2015년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의 촬영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읍성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역사의 흔적이 한데 어우러져 역사물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제작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만큼 앞으로도 촬영지로서 더욱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관계자는 “방송 또는 영화 제작사로부터 촬영장소 섭외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낙안읍성이 여느 지역보다 역사적 고증이 이뤄진 곳인 만큼 유익하고 의미 있는 촬영을 위해 문화보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검사비 지원

여수시가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2024년도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여수시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애 등록 신청을 못하는 아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급비용과 검사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를 신규 등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또 기존 장애인이 장애를 신규 추가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의 경우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장애 1만 5000원이다. 검사비는 최대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해당 사업을 알리고, 시 거주 장애인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8월 기준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74세대 176만 원, 검사비 16세대 141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부장 chkim@

곡성군,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대응 훈련

곡성군이 복지업무 관련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주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복지업무 관련 폭언, 폭행, 반복전화, 기물 파손, 신체적 위협 등의 특이민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굳은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과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복지업무 관련 특이민원 비상대응반’

을 편성했다. 비상대응반은 지휘통제반, 초기대처반, 민원인 대피 유도반, 피해공무원 구조반 등 총 4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인구정책과와 상하수도사업소, 곡성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비상대응반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는 안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보성군은 지난 27일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했다. 건강 지킴이 대상 장애인이 치아 진료를 받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장애인 30명 의료·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건강 지킴이’ 사업 혈압 검사, 구강·치아 진료

보성군이 지난 27일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전라남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한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 지킴이’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 의료접근성 개선을 통한 건강권·알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보성장애인복지관에서 전라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순천의료원, 목포시의료원, 보성군 보건소와 함께 8명의 전문 의료진과 9명의 행정 수행 인력이 지역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 추진단은 혈압, 혈당, 골밀도 등 검사와 구강 및 치아 상태 진료, 치아 스케일링을 진행했으며, 한의과 진료를 통해 통증 상담과 붙이는 수지

침 제공 등의 의료서비스도 병행했다.

이번 건강 서비스와 상담 외에도 전남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리 서비스와 (사)전라남도지체장애인의회의 푸드트럭을 운영해 다채로운 즐거움도 제공했다.

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연계 사업인 ‘무장애 365 캠페인’ 보성 복지 코너를 진행해 보성장애인복지 안내 책자, 무장애 이동식 경사로,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사업 등을 홍보하며 지역민의 알권리와 복지 욕구 충족에 앞장섰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보성군지회 조만제 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 지킴이’ 사업과 보성군 ‘무장애 365 캠페인’ 사업 등 전라남도 보성군이 적극적인 행정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며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보성군과 전라남도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공영민(가운데) 고흥군수와 군청 관계자들이 생명사랑 릴레이 챌린지를 전개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다음달 11일까지 자살 예방 캠페인

고흥군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 지난 28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2주간 자살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념행사를 전개한다.

자살 예방에 관한 관심을 독려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흥군청, 경찰서, 소방서, 고흥군 가족센터, 어린이집 등 관내 7개소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소중한 생명사랑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생명사랑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들은 함께 영상 제작에 참여해 지역 내 전광판에 송출할 예정이다.

또 지난 28일에는 고흥군청에서 민원인과 직원

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건강홍보관을 운영하며 ▲우울감을 활용한 스트레스 지수 측정 ▲우울척도 검사 ▲내 마음 살피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홍보 ▲추억의 뽕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호응을 얻었다.

기념주간에는 마음안심버스 운영과 자살 예방 캠페인도 이어질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은 없는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자살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자살 예방 인식개선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광양시 ‘구인구직 플랫폼’ ‘가입하고 치킨먹자’ 이벤트 추첨 통해 치킨 기프티콘

광양시가 일자리 종합 플랫폼인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가입하고 치킨먹자’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광양시 내 모든 공공, 민간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의 회원 가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체·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관내 업체가 플랫폼 회원가입 후 가입인증 게시글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하는 것이다.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9일간 플랫폼 홈페이지(job.gwangyang.go.kr)를 통해 진행되며, 광양시 소재 기업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를 위해서는 광양시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기업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해야 하며, 홈페이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지 사항 및 문의의 메뉴 내 이벤트란에 가입인증 게시글을 작성해야 한다.

총 30개 업체를 추첨해 내달 20일 플랫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당첨자에게는 4만 원 상당의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이성혁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감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감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감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감사